

# 전환기 러시아에서 지역의 출현과 지역주의 특성 변화 : 부랴찌야공화국을 사례로

김효섭(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1980년대 중반 소련의 정치·경제개혁을 위해 시작된 개혁·개방정책(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은 그 의도와 달리 소연방 구성공화국 제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개혁·개방정책으로 드러난 소비에트의 역사와 현실은 70여 년간의 국민통합이데올로기였던 '소비에트 국민·민족'은 다름 아닌 '러시아(민족)화'였음을 반증하였다. 소비에트 시기는 민족과 민족문화의 쇠퇴기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소연방에서는 민족주의, 분리주의로 일컬어지는 주권선언, 분리독립선언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열풍은 소연방 구성공화국인 러시아연방의 민족지역(행정구역상으로는 당시 자치공화국)을 비껴가지 않았으며, 각 지역에서도 민족부활과 주권선언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연방 민족지역들의 주권선언은 그 자체로는 지역의 지위 상승과 권한 확대를 꾀한 것이었지만, 단지 연방체제의 문제와 중앙-지방간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았다. 주권선언으로 민족지역의 지역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각 지역과 민족은 위로부터 이식된 정체성(소비에트 국민·민족)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 즉 정체성의 정치를 동반하였다. 왜냐하면 민족지역도 이미 러시아연방과 마찬가지로, 다민족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주권선언을 주도하는 집단과 그 목표에 따라 지역과 민족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리 나타났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 분리주의, 지역주의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특성과 형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연구의 사례지역인 부랴찌야공화국은 서쪽으로 바이칼호를 끼고 있고, 남으로는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몽골계 민족인 부랴뜨민족의 거주지역으로 17세기 중엽에 러시아제국에 귀속되었다. 부랴찌야 지역은 100여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지역으로서 명목민족(titular nation)인 부랴뜨민족이 전체 인구(약 100만 명)의 24%, 러시아민족이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 10월 8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중 여섯 번째로 선언한 부랴찌야공화국의 주권선언은 전환기에 지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었다. 주권선언의 목적은 실질적인 자치권의 획득, 특히 경제주권의 실현이었으며, 주권선언에 사용된 기제는 다름 아닌 '민족'이었다. 왜냐하면, 소연방은 형식적으로는 명목민족들에게 '민족자결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권선언 자체에 대해 찬성했음에 반해, 기제로 사용된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족별로 그 입장이 달랐다. 민족성에 따라 '주권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이에 따라 민족을 둘러싸고 정체성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대두하였고 — 민족주의가 발흥하였고 — 이러한 상황은 민족관계의 변화와 민족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민족담론’, 민족정치과정은 1994년을 기점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밖으로는 중앙과 지방에서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안으로는 민족정치과정을 지속할만한 내적 동력이 미미하였기 때문이었다. 후자는 명목민족인 부랴뜨민족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철저한 ‘민족형성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족담론이 서서히 약화되면서 그 자리를 ‘경제담론’이 메우기 시작하였다. 자유화, 사유화, 시장화로 초래된 사회경제적 혼란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이러한 경제담론은 러시아연방과 부랴찌야공화국이 세계 경제공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속에서의 지정(지경)학적 위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날로 성장하는 태평양-아시아, 동북아국가 속에서 부랴찌야를 찾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전환기 러시아연방에서 발생한 지역주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시사한다. 첫째, 지역주의의 발생은 ‘지역의 출현’ 과정이다. 소비에트시기 지역은 중요한 범주도 변수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라져야 할’ 대상이었지만, 주권선언을 전후해 러시아의 정치·경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게다가 ‘지역의 출현’은 지역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발현을 의미하며, 또한 이를 가능케 하였다. 둘째, 체제 전환기, 국가형성기에 민족지역에서 ‘민족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것이다. ‘민족’은 국가를 형성하는 시점에서는 중요한 역할,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국가형성이 일단락되거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면, 그 의미가 약화되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셋째, 전환기 러시아연방에서 발생한 지역주의의 특성 변화는 지역정체성의 변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정체성의 변화는 지역에서 제기된 중심담론과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초기에 지역의 중심담론이었던 ‘민족담론’은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경제담론’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정체성은 민족지역, 다민족지역, 지정학적 지역으로 변화하였다.